

[설교 요약]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마음을 펼쳐 놓는 자복과 간구였습니다. 그는 자신과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며,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심판에서 자신을 빼내 달라고 하지 않고, 자신이 바로 그 심판의 대상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하며 감사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맞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펼쳐 놓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70 년의 심판을 그대로 이루시고, 그 후에는 약속하신 대로 주의 얼굴빛을 예루살렘에 비추어 달라는 용서에 대한 간구의 내용이 주목할 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나의 죄와 형편을 숨김없이 고백하고 그분의 공의와 언약 안에 내가 속해 있음을 감사하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눔]

1. 요즘 내가 하나님께 가장 많이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 기도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바라는 말과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형편을 숨김없이 펼쳐 놓는 말은 각각 얼마나 들어 있나요?
2. 다니엘은 자신이 겪고 있는 포로생활을 없애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그분의 심판과 언약 안에 있는 당사자임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는 어려움이나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주로 그것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먼저 보려고 하나요?
3. 다니엘은 자신의 죄와 형편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펼쳐 놓으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언약을 인정하며 감사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펼쳐 놓고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감사하며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은 무엇인가요?